

제27차 국제 태양에너지 컨퍼런스 참가

- 강병구 전문원(부원장실 홍보팀)

1. 출장개요

- 출 장 자 : 강병구
- 출장기간 : 2012. 9. 24 ~ 10. 2 (7박 9일)
- 출장지역 : 독일 프랑크푸르트 / 프랑스 파리
- 출장목적 :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제27차 국제 태양에너지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대규모 컨퍼런스 및 전시부스를 참관. 선진국의 행사 진행 노하우 및 언론 홍보 방식을 보고 배움으로써 향후 연구원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시 행사 운영능력과 홍보역량을 제고하여 연구원 발전에 기여

- 선진 국제세미나 및 국제기구 등을 현지 방문하여,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원의 글로벌화, 창의력 및 경쟁력을 높임.

□ 출장일정

구분	일자	세부일정
제1일	9월 24일(월)	인천 - 프랑스
제2일	9월 25일(화)	OECD 본부 방문
제3일	9월 26일(수)	파리 - 프랑크푸르트 - Dr. Stefan W. Glunz 발표 참석 - 기자 회견 및 전문가 인터뷰 참관 - 웨이퍼 기반의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
제4일	9월 27일(목)	프랑크푸르트 태양에너지 컨퍼런스 - 제2세션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발표 참석 - 기자 회견 및 전문가 인터뷰 참관 - 프레스센터 방문
제5일	9월 28일(금)	프랑크푸르트 태양에너지 컨퍼런스 - 사이언스 파크 관계자 발표 참석 - 컨퍼런스 주최기관 담당자를 통한 컨퍼런스 개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청취
제6일	9월 29일(토)	프랑크푸르트 태양에너지 컨퍼런스 참석 - 트위터, 페이스북 및 유튜브 운영 참관
제7일	9월 30일(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견학
제8일	10월 1일(월)	휴식 및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 19:00
제9일	10월 2일(화)	인천 도착 07:40

□ 태양에너지 컨퍼런스 주요 발표내용

○ 스테판 노박 박사(IEA PVPS 국제에너지기구 일반 의장)

-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에너지 관련 국제회의이며, 올해로 27회를 맞는다. 특히, 독일에는 태양광산업 클러스터(튀링겐 주, 작센 주, 작센-안할트 주)가 발달되어 있어 중요한 태양광 관련 국제회의 개최된다.



- 독일은 태양에너지를 일찍부터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글로벌 태양광 기업과 연구소, 대학을 연계하여 세계 최강의 태양광 클러스터 성장시킴.
- 세계적으로 유명한 Q-Cell를 비롯하여 30여개의 태양광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전세계 태양에너지의 20%를 생산함.



○ 아널프 유거-발다 박사 (유럽위원회, DG 공동연구센터 위원장)

- 독일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태양광 발전을 선도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금융은 물론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많은 지원책을 제시
- 태양광 발전 사업에 좋은 입지를 갖고 있지 않은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태양광 에너지 국가로 올라선 것은 독일 정부의 장

기적인 지원도 큰 역할을 함.

- 최근에는 연구소들이 산학연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매출액의 일부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과 비용절감에 주력하고 있음.
- 태양광 관련학과를 통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용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태양광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마르쿠스 피셔 박사 (Q-Cell 이사)

- 최근에는 태양광 및 태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중점을 두며, 태양광 분야 관련 업체와 대학, 연구소가 모여 있는 “클러스터”가 매우 중요함.
- 베를린기술대학교, 베를린기술재단 등과 8개의 태양전지 회사가 연구단지 내에 태양전지단지를 조성.
- 독일의 대표적 에너지 절감 주택인 패시브하우스 단지도 착공.



□ 태양에너지 컨퍼런스 주요 특징

- 독일이 기술적으로 아직은 세계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나, 중국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독일을 추격하고 있음. 실제로 박람회에도 참석한 업체의 절반 정도는 중국 및 중국계 기업으로 파악됨.
- 일본은 지진의 여파와 함께 저성장의 늪에서 아직 나오지 못해 일본 태양광 기업의 급격한 감소를 목격. 독일은 장비와 핵심부품에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따돌림.
- 우리나라 기업은 소재부문인 폴리실리콘과 태양전지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임.



- 중국 및 중국계 태양에너지 기업들은 박람회 기간 중 제품의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케팅 나섬.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수요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이 공급하고 있으나 중국 제품은 기술적으로 떨어져 효율이 낮음. 가격적인 점에서 매력이 있어 중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시키는 전환 효율에서는 미국 및 일본 기업들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을 보면 아직은 국내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 해외시장만을 바라보고 있음. 태양광 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함.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태양광 시장은 중국 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이는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함.

□ 주 OECD 대표부 방문 (프랑스 파리)

○ OECD 대표부 설립 목적

-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구

○ OECD 대표부 주요 추진업무

-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의 경제운용 경험 활용
- OECD는 연 2,400회 이상 회의개최, 40,000명의 고위정책 입안자·전문가가 참석하여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경험 교류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협의
- 세계경제동향 신속파악 및 대응 : 우리 경제의 조기 경보
- 매년 2회 Economic Outlook을 통해 발표되는 OECD의 세계경제동향 보고서를 신속히 분석하여 우리대응에 활용토록 함.
- 한편 매년 실시되고 있는 각국 경제동향검토회의(EDRC) 및 경제정책 회의(EPC)의 각국 경제 분석 자료를 신속히 파악, 관계부처에 제공, 우리 경제정책에 활용토록 조치
-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 참여 및 사전 대처
- 새롭게 대두되는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사전에 반영토록 함.
- 환경, 경쟁정책, 노동, 반부패, 국제투자(MAI)등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규범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 우리 입장 반영 노력

- OECD 내 한국 위상 정립